8 아랍에미리트

8-1 UAE, 동물복지법을 위한 첫 컨퍼런스 개최

■ 주요내용

- 지난 11월 2일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UAE 내 동물 및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국가 동물 복지제도개발에 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음
  - 중동지역 내 위험동물 및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, 특히 동물 학대문제가 심각함
  - 컨퍼런스에서 몇몇의 실제 동물학대 케이스들이 언급됨
  - UAE 기후 및 환경변화부 장관 알 제유디 박사는 "이번 컨퍼런스는 중동지역 내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물복지 관련 행사이며,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가 동물 복지법 제정 및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"라고 언급
-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신규 전략은 가축의 육로 및 해상 운반, 도살장 운영 뿐만 아니라 동물싸움 등과 관련된 더 강경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법안통과 예정임
  - 특히 신규 연방국가의회 제정법을 통해 희귀동물에 대한 블랙마켓의 집행 및 벌금이 강화될 예정이며 법적으로 야생 혹은 희귀동물 보유는 동물원, 야생공원, 서커스, 사육 및 연구센터에서만 허용됨
  - 에미리트 동물복지사회 간부인 다이프 루아미 박사는,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법도 그에 따라 세워지고 있어 그 첫번째로 떠돌이개 및 고양이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 법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함
  - 지난 6월, 연방국가의회는 신규 '동물학대 처벌'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동물학대 범죄자는 최고 약 3억 2천만원의 벌금 또는 구속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3천만원 ~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  -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신규 전략은 6월 통과된 축산 법령과 통합될 것으로 알려짐

* 출처 : 더 내셔널紙 (2016. 11. 2, 11. 5) / 걸프뉴스紙 (2016. 11. 2, 11. 7)

시사점

- 동물 복지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동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UAE가 지역 내 처음으로 동물 복지법 제정 및 인식 교육을 시작함. 또한 무슬림들은 동물 보호가 무슬림 교리의 한 부분이며 중동의 문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음
- UAE 내 학교에 배부되고 있는 희귀동물 보유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책자가 미국기반의 동물복지 국제펀드 기구(IFAW)와의 협력으로 발간되는 등 IFAW와의 교류 및 협력이 UAE 동물복지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

작성 : 아부다비 지사